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교황, 74일 만에 대중미사 주례

프란치스코 교황이 24일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광장에서 열린 주일 삼종기도에 깜짝 등장했다. 교황이 주일 삼종기도 같은 대중미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종교 집회가 금지된 지 74일 만이다.

이날 교황은 2015년 생태적 가치를 강조하며 발표한 회칙 '찬미 받으소서(Laudato Si)' 공개 5주년을 맞아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에 대해 설교했다. 그는 "나는 (이 회칙으로) 지구의 외침과 가난한 이들의 외침에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고자 했다" 며 "기후 변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이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하자." 고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날 미사 자체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교황은 미사가 끝나갈 무렵 대성당 창가로 나와 광장에 모인 신도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광장에는 98명의 신자만이 입장했다. 평소 5명까지 앉았던 좌석에도 2명씩 앉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켰다. 참석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 가주, 현장 예배 허용 가이드라인 발표

캘리포니아 보건국이 지난 25일 종교시설 오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초대 10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개인 보건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국은 3주 동안 새 지침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 여부를 살핀 후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완전한 오픈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예배 참석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현금바구니를 돌리지 말 것 ●교회가 속해있는 보건국 연락처를 공지할 것 ●입장 전 참석자들의 체온을 확인 할 것 ●봉사자들에게 개인 보건안전을 위한 물품(마스크, 일회용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제공할 것 ●모임 장소의 환기를 자주 시킬 것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문손잡이 등 교회 시설의 정기적인 소독 ●친교를 위한 음식물 제공 금지 ●예배 장소를 제외하고 가정이나 사업체 방문을 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시련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마태 14,22-33)

사람은 생애를 통해서 올라가는 때와 내려가는 때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올라갈 때보다 오하러 내려갈 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공할 때보다도 실패할 때가 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기입니다.

엘리아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숭배자들과 싸워서 그들의 예언자 450명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아주 통쾌하고도 멋진 승리의 장면이었으며 이때 엘리아의 놀라운 기세는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광신자였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아에게 복수를 다짐하자 그는 거꾸로 무서움에 떨며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믿음의 기운이 한 순간에 꺾여서 하나님께 죽어 달라는 애원도 했습니다.

어제의 당당한 승리자가 오늘은 패배자가 되어 자기 몸 하나 숨길 수가 없었고 놀라운 신앙을 증거하였던 그도 하나님은 자기를 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난 것이며 이제 더 이상의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엘리아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으며 새로운 차원에서 그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어제의 승리로 오만해질 수도 있는 엘리아를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조용하고 여린 소리' 에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옵니다.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빵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배에 먼저 태워 보내십니다. 풍량이 그들을 괴롭힐



줄을 뻗히 하시면서도 새벽 4시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치 당신이 없는 세상을 어디 좀 살아 보거라 하는 식으로 버려두셨다가 나중에 물 위를 걸어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이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여 더 큰 두려움에 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은 "나다, 안심하여라." 하시며 배에 오르시자 바람은 그치고 풍량은 잔잔해졌습니다.

인생이라는 배를 저어 가는 호수에는 언제나 사나운 바람과 성난 물결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다, 안심하여라." 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진정 우리가 내려갔을 때 그 밑바닥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전의 얘기입니다. 어떤 형제가 몇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수중에 꼭 7만원이 남더라고요. 너무도 허망하고 답답했던 그는 성당을 찾아가 신부님께 조

언을 청했더니 신부님은 "그 7만원은 뭐하러 가지고 있노. 내 3만 원을 더 줄 테니까 10만 원을 채워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진짜 빈주먹으로 다시 시작해 보거라." 하시더라고요.

형제가 처음엔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기막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는 사람 도와줄 생각은 않고 '벼룩의 간' 마저도 뺏으려 하는구나 하는 착각도 들었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어차피 망한 것, 7만 원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거꾸로 살았던 사실을 깨닫고는 신부님 말씀대로 무일푼으로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물 속에 빠졌던 베드로의 주책(?)도 일품입니다. 소위 첫째가는 제자라는 그가 그 모양이니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마는 물 속에 빠지는 인간의 그 허망한 현실에서 주님께 온전히 매달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를 잡아 일으키는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역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내려가는 때가 바로 그분을 만나는 때요 새롭게 크게 일어서는 때입니다. 엘리아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마음에 풍량이 심하고 분노의 불길이 크게 솟구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여린 소리' 를 진실로 체험하게 됩니다. 실패해서 고생할 때나 시련으로 몸부림칠 때는 하나님이 우릴 찾아오시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강길웅 신부-

### 타운뉴스 업소록

# "리스팅 신청하세요!"

###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주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714.530.1367 / Fax: 714.530.6473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townnewsusa.com